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정생활 문화적응 단계별 특성*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of Marriage Immigrants' Acculturation Stage and the Source of Support : With an Emphasis on Filipino Marriage Immigrants' Family Life Culture in Korea

원광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과
교 수 홍달아기**
교 수 채 옥 희***
박사과정 한 은 진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송 복 희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Wonkwang University
Professor, Dal-Ah-Gi Hong
Professor, Ock-Hi Chae
Doctor course, Eun-Jin Han
Ik-san multi-culture family support center
Secretary-general, Bok-Hee Song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해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Filipino marriage immigrants' acculturation stages in regards to their Korean family life culture and to identify the source of the support for each stage, hence to provide information for educational programs that would promote successful acculturation for each stage. The following findings have been obtain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8 female

* 본 논문은 원광대학교 2010년 교내연구비로 수행되었음.
** 주저자 : 홍달아기 (dalhong@wku.ac.kr)
*** 교신저자 : 채옥희 (chae@wku.ac.kr)

Filipino immigrants to Korea.

In a range of obstacles from the Honeymoon Stage to the Confusion stage, the first are the language and the aspects of the food/cooking/ingredients/diet that are different from their own culture. Especially, pregnancy/childbirth is a major change in one's life and the biggest challenge in the acculturation process. As food and cooking are the first change that the immigrants have to face and get accustomed to in the early stage of their Korean life, the food culture is rather easier for the immigrants to get accustomed to than other parts of Korean life. From the Honeymoon Stage to the Harmony Stage, the immigrants make efforts to help their family in the home, while they look to their future in their children during the Autonomy Stage. Regardless of how long they have been in Korea, from the Honeymoon Stage to the Autonomy Stage, the immigrants have a hard time with the patriarchal environment in Korea due to the bilateral nature of kinship in the Philippines.

Secondly, the immigrants receive the most support from their husband, family, and the tutors in Korean culture, while their mothers-in-law are the main source of the support for the Korean diet. At the Confusion Stage, the immigrants start visiting the regional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nd get help from the friends they meet there while depending on the TV for cooking tips. From the Harmony Stage, they may seek a job through the community network with their own effort and their children's help. In the Autonomy Stage, they are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rather than their own parents, and they find their own identity as a Korean and realize that their effort is important

Key Words : 허니문단계 (Honeymoon Stage), 혼돈단계 (Confusion Stage), 조화단계 (Harmony Stage), 자립단계 (Autonomy Stage)

I. 서론

국제결혼은 인종, 국가, 민족 간의 문제이외에 가족영역에서 파급효과를 가진다. 여성의 빈곤화와 이주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가난하면서 가족부양의 책임을 갖는 빈곤국 여성들은 이주수단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된다. 특히 필리핀 여성의 결혼이주 배경과 맥락에는 필리핀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제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필리핀 여성들의 국제결혼은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어 온 사회현상이다. 외국과 외국인에 대하여 개방적인 사회적 풍토와 척박한 삶에서 벗어나거나 보다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여성들의 결혼이동욕구와 국제결혼중매업체 등장과 같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깔려있어 국제결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 사회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여성들의 결혼관 변화 등으로 국제결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단일민족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다인종, 다문화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제결혼은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서 상이한 두 나라의 문화가 결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혼생활에서 문화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결혼이주여성은 두 나라 사회의 문

화혼용과 가정이라는 좁은 영역 안에서 남편이나 시댁식구들과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되며 사회적 차원에서도 일방적인 한국문화의 학습을 요구받고 동화를 강요당하게 된다. 한국도 이제 다인종 다문화사회를 인정하며 결혼이주여성에게 일방적인 한국문화로 동화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이며 배타적인 성향은 국제결혼가족의 문제를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만 보려는 경향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갈등과 적응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전략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남편과의 갈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김희주・은선경, 2007)와 필리핀 결혼이주여성과 가족구성원들의 생존전략을 분석하여 부부관계가 구조적 불평등을 수반한다고 지적한 연구(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필리핀과 중국, 일본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적응수준에 관한 연구(양순미, 2006) 등이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는 한국결혼생활에서 고충에 관한 것이며 남편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문화적응단계나 과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의 입국시기에 따른 한국가정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어렵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삶은 양변제 가족문화에 기인한 가족관과 결혼관을 볼 수 있다. 즉 딸들은 친정에 대한 지원 의무감으로 가족을 돕기 위한 결혼이주가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평등한 부부관계, 부부간의 애정표현의 중요성 등의 가족문화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남성들은 가부장적인 가족가치관으로 처가에는 관심도 주지 않고 가정의 일은 여성책임으로만 간주되는 문화이기에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입국초기부터 문화적응에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인 의식주 및 가족생활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직접적인 부딪침을 통해 적응해 나가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통한 문화적응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 집단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보기 보다는 그들의 출신국가, 국내 거주 지역에 따라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한국남성과 결혼을 통해서 한국 문화에 어렵게 적응하면서 살게 되며, 단순한 거주자로서 뿐 만 아니라 국민으로, 자녀를 통해 향후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주요자원으로서 기능해야 하므로 결혼이주여성과 이들 가족에 대한 접근과 이들의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문화적응경험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즉,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입국초기단계부터 한국가정생활 문화 속에서 어떤 문화적응특성을 보이며, 어떻게 대처해 나가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문화적응유형 이론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며 결혼이주여성의 입국단계에 따라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단계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가정생활문화는 원문화의 정체성도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민문화 습득에 편중되는 경향이다. 이는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준비과정 없이 혼인을 통해 입국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초기부터 다양한 사회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최금해, 2006; 김오남, 2006).

문화적응은 개인이 새로운 환경과 연관된 외적 심리적 결과로서 가족생활과 기타영역에서 매일

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문화적응은 필수적으로 변화를 수반하며 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는 짧은 기간에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민역사가 오래된 서구의 많은 학자들은 문화적응단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Lysgaard(1955)는 미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첫번째 집단(0-6개월)과 세번째 집단(18개월 이상)에서 전문적, 교육적, 개인적으로 사회적응에서 훌륭한 적응을 보이고, 두번째 집단(6-18개월)은 좋지 않은 적응을 보인다고 했다. 즉 국외에 거주한지 6-12개월된 이주자들이 6개월 미만이나 18개월 이상된 사람들보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Ward et al., 1998, 재인용).

Oberg(1960)는 문화충격을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겪는 직업병이라고 규정하면서 적응과정을 4단계로 설명했다. 첫째, 허니문단계는 새로운 문화 환경에 매료당하고 열중하는 단계로 행복감 단계이다. 둘째 적대단계는 개인은 문화충격을 경험하며 위기와 고통, 그리고 위축의 시기를 경험한다. 셋째 회복단계는 새로운 문화에 서서히 적응하며 주류사회의 문화적 규범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배운다. 최종단계는 숙달단계로 적응, 통합, 즐거움으로 하였다.

Pedersen(1995)은 허니문, 분열, 재통합, 자립, 상호의존 단계로 구분하였다. 허니문단계에서 이주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해 흥분하고 모험적이며 매료상태에 빠져있다. 분열단계에서 원 문화와의 유사성이 처음 인식했던 것보다 피상적이며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고 인식한다. 재통합단계는 이주자들이 새로운 환경을 조금씩 이해하지만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된다. 자립단계에서 보다 많은 학습을 통해 원숙한 적응을 이루게 된다. 상호의존단계에서 이주자는 마침내 오랜 소외감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게 된다.

Berry와 Sam(1997)은 문화적응이 시간에 흐름따라 적응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1단계는 접촉단계로 서로 다른 두개의 문화가 만나는 초기단계이고, 2단계는 갈등단계로서 이주자들을 수용하는 주류사회가 이주자에게 변화의 압력을 가하는 단계로 이 시기에 이주자들은 정체성의 혼미를 경험할 수 있으며 행동의 변화와 문화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3단계는 해결단계로서 문화적응의 4가지유형 즉, 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응을 해결한다.

최근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적응 관련연구들을 살펴보면 최혜지(2009)는 문화적응유형을 주변화, 분리, 동화, 통합으로 구분하여 결혼이주여성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유형을 판별하는 특성을 규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착기간과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들(Koser, 1997; Shen et al., 2001; 채정민, 2007 재인용)에 의하면 정착경과 기간은 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착기간과 문화적응수준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착기간은 문화적응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체류기간이 길수록 한국사회 문화적응도가 높아진다고 보았으며 체류기간이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음식, 한국가족문화, 한국어 등에 익숙해지고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및 수용의 폭이 넓어지면서 무의식적으로 한국적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익혔다(강현주, 2007).

구차순(2007)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단계를 혼돈과 갈등의 단계, 둘러보고 시도해 봄 단계, 조화로 위치를 찾음 단계, 공동체 구성원으로 뿌리내리기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보았다. 혼돈과 갈등단계는 국제결혼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생활을 하면서 기대와 현실이 충돌하고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혼돈과 갈등을 겪는 시기이다. 둘러보고 시도함 단계는 가족을 이루며 살기위해 안간 힘을 쓰기 보다는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고 자

신의 위치를 살펴보는 단계이다. 조화로 위치를 찾음 단계는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주변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때는 적절하지 않는 문화는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학습하며 적합함을 위해 노력한다. 공동체 구성원으로 뿌리내리기 단계는 결혼이주여성이 가족의 한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가족은 특별한 문화를 지닌 가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새로운 사회에 뿌리내리게 된다.

위와 같이 국내외연구자들의 문화적응단계를 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외국연구를 통해서 이주자의 문화적응단계는 Lysgaad(1955)만이 3단계로 보았고 대다수 학자들이 문화적응단계를 4단계로 분류하였다.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적응의 어려움은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며, 가장 심한 어려움은 입국초기일 것으로 보았다. 입국초기에 결혼이주여성은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외로움을 경험하며 갑작스럽고 과다한 변화와 지지체계를 잃은 상실감은 문화적응능력에 과다한 부담을 주게 되어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다. 입국초기단계를 거치고 2차단계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면서 문화적 행동의 변화가 시작되어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3단계는 입국시기가 길어지면서 주류문화의 압력도 받게 되면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단계에서는 적응기나 해결단계로 보았다.

이상과 같은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문화적응단계를 4단계로 보는 경향이며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문화적응도가 높다고 보았다. 결혼이주여성도 문화적응은 필연적인 것으로 입국시기에 따라 갈등을 느끼며 순차적으로 변화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정체성을 찾는다. 그러나 입국시기에 따른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 연구 목적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을 선택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표에서 제시한 국내외 이론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입국시기를 통해 정착기간을 중심으로 문화적응단계를 4단계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허니문단계로 결혼에 대한 기대, 희망, 코리아드림으로 매료당하고 열중하면서 행복감도 있으나 현실에 부딪치면서 실망하고 갈등하는 입국 1년 미만으로 만족과 갈등이 공존하는 단계이다. 둘째는 혼돈단계로 입국2년 이상 된 자들로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고, 희망과 기대가 어긋나면서 갈등을 겪고 문화충격을 경험하며 위기와 고통, 위축되고, 혼돈하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는 조화단계로 입국 4-5년 이상인 사례로 서서히 적응하며 규범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배우며 모국의 가정생활문화와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동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 단계는 자립단계로 입국 8-9년 이상자들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특별한 문화를 지닌 한국인으

〈표 1〉 연구자들에 따른 문화적응단계

적응 단계	Lysgaad (1955)	Oberg (1960)	Pedersen (1995)	Berry&Sam (1997)	구차순 (2007)	최혜지 (2009)
1	0-6개월	허니문단계	허니문단계	접촉단계	혼돈과 갈등	주변화
2	6-18개월	적대단계	분열단계	갈등단계	둘러보고 시도함	분리
3	18개월이상	회복단계	재통합단계	해결단계 ①동화 ②통합 ③분리 ④주변화	조화로 위치찾음	동화
4		숙달단계	자립단계		공동체구성원으로 뿌리내리기	통합

로서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것으로 보았다.

2.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정생활문화적응을 위한 지원망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지식과 준비과정 없이 혼인을 통해 입국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초기부터 다양한 사회문화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가정생활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다각도로 이루어져왔다. 즉 결혼이주여성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적응(채옥희・홍달아기, 2007; 정기선, 2008), 결혼생활적응(최금해, 2006; 추현화, 2008), 사회문화적응 및 적응유형(박주희・정진경, 2007; 최혜지, 2009), 적응전략(김희주・은선경, 2007),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생활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연구(김민정 외, 2006)들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입국초기 한국가정생활문화적응의 어려움은 식생활과 의사소통 문제를 가장 힘들어하고 있으나 필리핀여성들은 입국초기부터 한국의 가부장적인 가족문화를 힘들어 하는 것으로 보았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부딪치는 문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부관계, 시댁가족들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여성의 취업, 필리핀 친정으로 송금문제가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된다(안혜옥, 2006). 또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가부장적 가족질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의사소통의 문제 다음으로 음식문화, 부부위계에 대한 생각, 자녀의 소속감과 양육태도, 친족과의 관계등 문화적인 차이,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 남편의 술과 담배, 도박, 시부모의 간섭이나 남편의 시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등에서 갈등을 느낀다(채옥희・홍달아기・송복희, 2009).

신경희(2005)도 부부관계에 대한 생각, 자녀양육방식, 친족관계, 문화와 전통, 관습에서 오는 오해 등 다방면에서 갈등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 남편은 결혼초기에는 문화차이를 인정하나 언어와 식생활차이 정도로 인식하며, 부인의 빠른 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방적인 동화를 요구해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가정생활문화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사회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정착하게하기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지지가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을 중심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전문가 등으로 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도움(사랑, 돌봄, 이해, 격려, 긍정, 신뢰, 관심 등의 태도 및 행동, 정보적 도움(사건해결과 관계된 여러 가지 정보제공 행위를 포함), 물질적 도움(금전, 시간, 생활용품, 음식 등 제공)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가정생활 속에서 매일 대면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생활하는 남편이나 가족의 지지가 가장 큰 것으로 본다. Lee(2008)연구에서는 지지적인 남편이 있는 아시아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덜 느끼며, 이러한 비공식적 역할은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로 이루어졌다.

임안나(2005)는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들은 친정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른 필리핀 여성들과 관계망을 확대하고 유지시키며 그들 나름대로 적응전략을 구사한다고 하였다. 홍달아기와 채옥희(2006)는 결혼지속 연수에 따라 적응전략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즉, 결혼연수가 10년 이상인 여성들은 한국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자신의 특기를 살려 일을 하고 있거나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갈등을 대처해나가는 것으로 보았다. 결혼 5, 6년 정도의 여성들은 고향친구와 수다와 쇼핑을 들고 있으며, 자국민이나 친척들과의 만남이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고, 3년 이하로 짧은 경우 남편의 배려가 큰 지지자원이며, 자국민과의 의사소통이 가장 좋아하는 갈등해소 방법이라고 하였다.

최금해(2006)는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음식 만드는 방법을 시어머니, 남편 또는 이웃으로부터 배우고 있으며, 가족갈등은 시댁가족의 지지가 부부의 성공적인 결혼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보았다. 유가효・홍성희・김성숙・홍성의(2008)는 결혼이주여성 입국초기의 성공적인 가정생활적응요인을 개인적인 자원인 한국어 능력, 긍정적인 가치관과 노력, 자존감, 자기개발, 결혼동기로 보았으며 가족의 지원은 남편의 지원, 시부모 및 기타 가족의 지원, 경제력으로 보았다. 한편 사회적 지원은 모국인 친구, 종교기관, 정부기관의 지원이라고 하였다. 한편 최연실・권용혁・우실하(2007)는 결혼생활에 적응하기위해 사용한 전략으로 현재의 상황을 인정, 처지가 개선될 때까지 인내, 배우자의 입장이해, 성찰, 변화 시도 등이라고 하였다.

채옥희 등(2009)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정생활적응이 본인의 노력과 가족들의 지원, 이웃과 친구의 지원, 지역사회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이태옥(2005)은 결혼이주가족이 사회적인 편견과 오해 속에서 경제적으로나 관계망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지역사회 지지망 형성이 필요함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가정생활에 적응해나가기 위해 본인의 노력과 더불어 많은 남편과 가족, 친구, 지역사회 지원을 받으면서 한국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입국시기에 따라 문화적응단계를 분류하고, 한국가정생활문화인 의・식・주 및 가족생활로 범주화하여 그들이 느끼고 경험한 적응 특성을 찾고 지원망을 살피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

<연구내용 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단계를 분류한 후 각 단계별 특성을 한국가정생활 의,식,주 및 가족생활경험을 통해서 살펴본다.

<연구내용 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망을 살펴본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 적응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보는 본 연구에서 통계, 설문지등과 같은 양적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그들이 처한 삶의 맥락과 경험은 양적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경험을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동안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참여자로서 적극적인 의미를 띄게 되며 여성스스로가 삶을 구성하는 주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질적 연구방법은 결혼이주여성자신의 경험을 풀어내는 주체적 행위자가 되어 이끌어가기 때문에 본연구의 의미를 더해 줄 것이다. 특히 모국의 경제발전전략으로 결혼이주가 장려되는 필리핀 출신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문화적응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보다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자료 획득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처한 삶의 맥락과 경험 등을 드러내기 위해 기본적인 질문지를 바탕으로 질문하되 연구 참여자와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면접 시 최대한 유연한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민감할 수 있는 환경을 완화시키도록 노력 하였다

2010년 9월 2일부터 2010년 11월 1일까지 IK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차 면접은 입국년도 별로 4-5명씩 모여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개별적으로 심층면접 하였다. 면접시간은 한사람 당 2시간정도 소요되었다. 진실된 자료를 얻기 위해 면담시간 외에 식사하면서 신뢰감을 주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입국초기 1년 미만이거나 한국어가 서투른 경우 필리핀 여성의 통역으로 진행하였다. 심층면접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입국시기에 따라 문화 적응단계를 구분하고 하위질문으로 현재의 의, 식, 주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어려웠던 경험과 그 대처 경험에 대한 지원을 질문 하였다. 연구자들은 IK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립부터 6년여 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종사하면서 참여자들과 충분한 라포가 형성이 되어 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참여자들의 입국 시기는 2003년-2004년 4명, 2007년-2008년 5명, 2009년 4명, 2010년 5명이다. 이들은 입국시기별로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기에 이들을 문화적응 4단계로 분류하였다. 평균나이는 여성들은 31.2세, 배우자 나이는 43.5세, 부부나이 차이는 12.3세이다. 여성의 학력은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이상이 10명, 고졸출신 7명, 초등학교 졸업자 1명인 것으로 보아 다른 동남아 여성들보다 교육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의 결혼 전 직업은 2명을 제외한 16명이 다양한 직종에서 일했다. 결혼형태는 종교기관 5명, 중매업체 6명, 친척이나 친구소개 7명이다. 초기입국자는 종교기관이나 중매업체를 통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친척이나 친구소개로 결혼해오는 경향이며, 남성은 재혼이 5명, 여성은 1명이다. 거주 지역은 농촌 8명으로 주택에 살고 있으며, 도시 10명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시부모와 동거 9명이며, 전처자녀가 있는 경우는 4명이다. 이들의 현재직업은 영어강사가 7명이고 미용실이나 매점 등에 4명, 주부도 7명이다. 이들은 동남아지역 여성들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부부의 연령차이가 적고, 결혼 전 직업이 다양하고, 남편은 재혼자가 많은 특징이 있다.

2.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가정생활문화 적응 단계에 따른 특성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착기간은 문화적응 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사회 문화적응도가 높았다는 가정 하에 한국생활문화적응단계를 입국시기별로 구분하였다. 입국 1년 미만으로 초기인 허니문단계인 참여자는 5, 11, 15, 16, 17이며, 입국 2년 이상 된 혼돈단계인 참여자는 6, 10, 13, 14이다. 입국 4~5년 이상인 조화단계는 참여자는 1, 2, 3, 8, 18이며, 입국시기가 8년 이상 된 자립단계인 참여자는 4, 7, 9, 12이다. 이들을 단계별로 가정생활문화인 의식주생활 및 가족생활로 범주화하여 그 특성을 살폈다. 의식주는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인 경험 및 본능적인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생활 속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이고 자연스럽게 적응할 것으로 보았다.

1) 허니문 단계

결혼이주여성들은 문화충격이라는 직업병 즉. 갑자기 국외로 이전된 사람들이 겪는 공포, 불안, 무망감등 부정적인 심리적 증상과 관계가 있지만 전형적으로 문화충격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만족한 적응을 성취한다. 허니문단계는 새로운 문

〈표 2〉 필리핀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년령 본인 (남편)	학력 본인 (남편)	혼전직업	입국 년도	결혼 형태	거주 지역	거주 양식	가족 유형	현재직업 여성 (남편)
1	33 (42)	대졸 (대졸)	영어교사	08.01	종교기관 초혼	농촌	주택	자녀1	영어강사 (회사원)
2	35 (46)	전문대 (고졸)	간호사	08.10	친구소개 초혼	도시	아파트	시모 자녀2	영어강사 (트럭기사)
3	28 (37)	대졸 (고졸)	무직	08.07	중개업체 초혼	농촌	주택	시부모 자녀1	영어강사 (무직)
4	31 (41)	고졸 (전문대)	정비공장	04.02	언니소개 여 : 재혼	도시	아파트	시부모 자녀2	영어강사 (건축업)
5	29 (42)	고졸 (고졸)	백화점	10.07	중개업체 초혼	도시	아파트	시모 전처자녀2	주부 (서비스업)
6	34 (51)	전문대졸 대학원졸	비지니스우먼	09.03	친구소개	도시	아파트	자녀1 친정모	주부 (종교직)
7	42 (49)	대학원졸 (중졸)	전당포	03.01	종교기관	농촌	단독 주택	자녀2	영어강사 (목수)
8	28 (42)	전문대1년 중퇴 (고졸)	백화점	08. 12	이모소개 남 : 재혼	도시	아파트	부부 자녀1 전처자녀2	주부 (회사원)
9	31 (44)	초졸 (고졸)	농업	04.10	종교기관 초혼	농촌	주택	시모 자녀2	매점 (노동)
10	29 (41)	고졸 (고졸)	회사	09.04	중개업체 남 : 재혼	도시	아파트	자녀1 전처자녀1	회사원 (건축업)
11	25 (45)	고졸 (대졸)	서비스직	10.08	중개업체 남 : 재혼	농촌	아파트	자녀1 전처자녀1	주부 (공무원)
12	37 (43)	고졸 (대졸)	약국회계	04.02	종교기관 초혼	도시	아파트	시모 자녀2	영어강사 (복지관)
13	35 (49)	전문대 (고졸)	전기회사	09.02	친구소개 초혼	농촌	주택	시모 자녀1	미용실 (단순노동)
14	32 (44)	고졸 (전문대)	회계	09.04	친구소개 남 : 재혼	도시	아파트	자녀1	공장 (단순노동)
15	24 (40)	고졸 (고중퇴)	무직	10.10	중개업체 초혼	농촌	주택	시부모	주부 (복지관)
16	29 (43)	대졸 (고졸)	약국보조	10.07	중개업체 남 : 재혼	도시	아파트	자녀1 전처자녀1	영어강사 (공무원)
17	31 (44)	대졸 (고졸)	자료분석	10.09	친구소개 초혼	도시	아파트	시부모 자녀1	주부 (모텔경영)
18	29 (40)	전문대 (고졸)	농업	07.04	종교기관 초혼	농촌	주택	자녀2	주부 (단순노동)

화 환경에 매료당하고 환상적이라거나 기묘하다든가, 신비롭다 식으로 초연한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그러나 행복감도 있지만 공포와 불안이 공존한다. 허니문단계는 단 며칠부터 6개월 될 때까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듯이 이때 이미 문화충격의 위기단계에 진입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Oberg, 1960). 입국초기에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가정생활문화에 곧바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한국생활에 대한 기대와 흥분으로 허니문을 시작하였으나 1개월도 지나지 않아 기대의 어그러짐과 한국말이 되지 않고,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내면에는 행복감과 공포, 불안이 공존한다. 그들의 한국가정생활 경험을 의식주생활 및 가족생활로 범주화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1) 의생활

필리핀의 무더운 날씨에 익숙한 여성들이 짧고 간편한 옷차림을 선호하며, 그들의 전통적인 의상은 바롱(Barong)이지만 축제나 행사시에 입는 경우가 많고 일상복은 서구지향적인 티셔쓰나 청바지를 선호한다(송복희, 2012). 그들의 의생활은 한국 젊은 여성들의 차림과 유사하나 시집살이 경험은 문화적인 차이로 만족하기도하지만 어려운 경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의 사계절로 다양한 의복차림이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시부모나 남편의 간섭으로 의복착용에 불편한 심정을 토로한다.

* 의복은 다양해서 좋으나 세탁기사용 못해서 손이 끊어질 것 같은 경험

세탁기도 사용할 줄 모르고 손빨래를 하면서 손이 시려워 손가락이 끊어 질 것 같은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어(참여자 11, 15, 16).

* 남편과 시어머니가 앞가슴이 파여진 옷을 입지 못하게 함

4계절이 있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곳도 너무 덥고, 모국에서 보통 입던 민소매 셔쓰나 끈만 있거나 앞 목선이 많이 파여진 상의와 짧은 반바지 차림이 일상복이었는데 시모와 남편이 옷을 잡아당기며 입지 못하게 했어요(참여자 15, 17).

(2) 식생활

필리핀 음식은 담백한 토착음식과 스페인 영향을 받은 기름진 고기요리, 미국영향을 받은 튀김과 페스트후드요리 등 다양하다. 또한 코코넛 밀크를 이용하여 조리를 하거나 기름으로 볶거나 튀긴 음식이 많다(김이선 외, 2006). 필리핀 음식의 특징은 기름지고 달거나 염분이 필요한 기후 때문에 짠 음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생활에서 문화적 차이로 한국음식인 된장, 청국장의 역한 냄새와 고추장, 김치의 매운맛은 필리핀여성들에게 적응하기 어렵다.

* 된장찌게, 청국장 냄새 역겨워요, 김치는 맵고…

된장, 청국장찌게를 처음 접했을 때 냄새가 이상하여 토할 것 같아 코를 막았어요, 김치는 맵고..필리핀에서는 얼음물 사먹어야 해요. 처음에는 밥을 먹기 힘들어 얼음물만 많이 마셨어요(참여자 5, 11, 15, 16, 17).

* 임신 했을 때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

한국음식 냄새 맡기 어렵고, 한국음식 먹기 힘들어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참여자11, 16).

결혼이주여성들이 입국초기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으로 음식과 언어소통의 불편함이다. 특히 임신시에는 한국음식냄새 힘들고, 고향음식 그리워하고, 출산 후 미역국만 먹기 힘들다.

(3) 주생활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 근교에는 판자촌 빈민단지가 형성되어 있어 빈부격차가 심각하다. 농

촌에서도 대부분 천정도 없는 전통가옥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열악한 주생활 환경에서 결혼해온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의 아파트 생활은 환상적이라고 만족해하면서도 청소나 문단속은 문화적 차이로 힘들어 한다.

* 아파트 생활이 너무 좋아요.
필리핀에서부터 아파트에서 살아 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생활환경이 너무 깨끗하고 쾌적하고 환상적…(참여자 5, 11, 16).

* 신발 벗고 방안으로 들어가기 귀찮아요.
필리핀에서는 실내에서도 신발신고 살았는데 한국에서 신발신고 방안으로 들어가려다 시모로부터 핀잔맞았어요. 귀찮은데…(참여자 5, 15).

* 물걸레질 엎드려 하는 거 힘들어요.
발로 바닥을 닦는데 시어머니가 놀라면서 큰소리로 엎드려서 손으로 이렇게 닦으라고 가르쳐주었어요. 깨끗한데 왜 자꾸만 닦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참여자 5, 15, 17).

* 도둑도 없는데 왜 문은 자꾸만 잠그는지…
필리핀에서는 옷을 빨래 줄에 말리려고 걸어두면 도둑들이 훔쳐가거든요. 이곳은 도둑도 없어요. 그러나 항상 문단 속 하래요(참여자 5, 15, 17).

(4) 가족생활

필리핀 가족제도는 양변제로 가족부양은 아들, 딸 구분 없이 경제적 원조를 담당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따라서 딸들은 친정에 대한 지원의무감으로 가족을 돕기 위한 결혼이주가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평등한 부부관계, 부부간의 애정표현의 중요성 등 큰소리를 내지 않는 가족문화를 가지고 있다(채옥희・홍달아기・송복희, 2011).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족생활에서 남편들이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하여 만족보다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로 실망하는 것으로 보아 허니문단계에서부터 기대와 흥분이 사라지면서 갈등이 시작된다.

* 남편이 나를 하인같이 부리는 것 같아요
남편은 가만히 앉아서 물 줘, 밥 줘, 옷 다려줘, 재 털이 가져와 등 나를 하인같이 부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지만 참고 살아요(참여자 11, 15, 17).

* 돈에 인색한 남편
일만하고 즐길 줄도 모르면서 나에게는 생활비도 거의 주지 않고 전처아이들에게는 잘 주는 것 같아요. 돈에 인색해서 전처와도 이혼한 것 같아요. 친정에 도움주려고 기대했는데(참여자 11).

* 큰소리치는 거 무서웠고, 외로워요
어려운 한국말도 못하는데 남편도 시모도 큰소리로 말하는 것 무서웠고, 슬프고, 답답했어요. 나 여기 왜 왔나 후회했어요(참여자 5, 15, 17).
남편이 큰소리 칠 때 무서워요. 정신적 학대 같아요(참여자 17).

* 한국에 오면 곧 취업하여 돈 벌어 친정 보내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서는 외출도 못하게 하고… 처음에 친정에 돈 좀 보내고서 취직도 못하게 해요(참여자 17).
입국 한 달 후부터 돈 벌어 친정 보냈어요(참여자 16).

허니문단계는 기대와 흥분, 갈등이 공존하는 시기이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대한 사전정보는 거의 없으며, 사계절이 있고, 매운 것을 먹는다는 것을 아는 정도이며 기초적인 한국어도 모른다. 한국음식 및 식습관은 결혼이주여성 모두 한국생활초기에 가장 먼저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였고 이들은 모국음식과는 다른 맛, 식습관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필리핀에서는 가족주의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하고, 개인의 생활은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사분담이나 가족행사나 가족문제에 남녀차이를 두지 않는다(김희주・은선경, 2007). 입국초기부터 의·식·주생활보다 한국 가부장적 가족제도로 힘들어 한다. 한국말이 통하지 않아 눈치만 살피고 있고, 남편만 의지하는데 하인 같이 부리는 남편과 큰소리치는 시어머니가 무섭고, 친정을 도와야 하는데 돈에 인색한 남편 때문에 기대와 흥분보다는 갈등이 심하고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회의를 갖고 있다.

2) **혼돈단계**

혼돈단계에서 이주자들은 원문화보다 유사성이 처음 인식했던 것보다 피상적이며 생각보다 크다고 인식한다. 이 단계에는 적응성 뿐 만 아니라 명료성까지도 적절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초연한 것이 불가능해지고 깊이 혼돈되어 있다(Chaitani, 2001). 이 단계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기간이다. 본 사례도 입국한지 1년 이상 2년 된 여성들로서 혼돈과 위축, 실수의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가정생활에 적응되는가 싶다가도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1) 의생활

필리핀은 지역과 계절에 따른 기온차가 적고 전국적으로 연평균기온이 섭씨 27도로 더운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서구화된 평상복을 선호한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7) 날씨가 덥기 때문에 반바지와 티샤쓰 차림이며, 가벼운 샌들이나 슬리퍼차림이며 농촌에서는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도 많다. 옷도 자주 갈아 입고 세탁도 자주해야하지만 물과 전기사정으로 세탁기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김현경・신동주, 2008).

* 사계절로 옷 종류 다양하고 좋으나 옷값이 많이 듬

여름옷부터 겨울코트까지 다양한 종류의 옷을 입게 되어 즐거웠으나 옷값이 비싸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요(참여자 10, 13).

* 옷을 어느 때 세탁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워

필리핀에서는 더위로 매일 옷을 바꾸어 입고 세탁도 하지만 이곳에서는 옷이 더러워지지 않아 언제 세탁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요. 아이들옷은 더러워지니까 쉽게 세탁해야하지만 어른 옷은 내의를 제외하고 세탁시점을 찾기 어렵더라고요(참여자 6, 10, 13).

(2) 식생활

필리핀의 식생활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만큼이나 음식종류도 많고 요리방법도 다양하지만 서민들의 식생활은 단순하다. 음식재료가 다르고 조리법, 식습관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다.

* 호박꽃으로 스프 만들었으나 먹는 가족이 없어 혼자만 먹음

필리핀에서는 호박꽃 스프를 자주 먹었기에 시어머니와 친척들이 방문했기에 된장 시레기국처럼 만들어 보았으나 무슨 맛이냐면서 시모와 가족들이 먹지 않아요(참여자 14).

* 돼지고기도 날것으로 먹는데 시어머니 큰소리치면서 큰 일 난다고 먹지 못하게 했어요(참여자 13).

* 산후조리 고통스러웠어요

더운 여름에 출산을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방을 따끈하게 해놓고, 땀을 흘리라면서 목욕도 못하게 하고, 미역국과 밥만 주었어요(참여자 13).

시원한 얼음물도 못 먹게 하구요. 정말 고통스런 1개월 이었어요.나중에는 시어머니 몰래 목욕도하고…(참여자 14).

(3) 주생활

필리핀의 기후와 전통가옥의 생활양식은 한국의 좌식문화에 적응하기 힘든 것 중의 하나일 것

이다. 따뜻한 아파트생활은 좋은데 이불과 요개어서 장롱에 넣는 일이 힘든다면서 침대를 사고 싶어 한다.

* 추운날씨에는 밖에 나가기 싫어요. 보일러가 돌아가는 따뜻한 방안에서 생활하는 것 너무 좋아요. 침대를 사고 싶어요(참여자 13).

* 좌식생활 힘들고, 매일같이 이불 개어 장농에 넣고…

방바닥 엎드려 물걸레질하고, 매일저녁 이불요 펴고 매일 아침 개어서 장농에 넣고 힘들어요(참여자 6, 10, 14).

(4) 가족생활

필리핀은 양성평등적인 나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 동기는 친정에 대한 지원의무감으로 가족을 돕기 위한 결혼이주가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 친정을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여성들이다. 그러나 한국은 가부장적이며 처가보다는 친가를 중요시하며, 처가는 멀리 할수록 좋다고 여겨 온 한국 문화 속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혼돈하고 갈등하면서도 친정을 돕는데서 행복감을 느낀다.

* 남편은 처가에 관심 없고 자기부모만 중요시함

친정 모가 한국에 와서 나 산후조리해주고, 지금은 농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벌면서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곧 필리핀으로 갈 거예요. 남편은 장모에 관심도 주지 않고 자기가족과 형제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많이 섭섭해요(참여자 6).

* 남편가게에서 일해도 월급 주지 않아....

남편가게에서 열심히 5개월 동안 일했는데 남편은 결혼할 때 빚을 졌다면서 월급을 하나도 주지 않아요. 친정아버지가 아파서 송금해야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남의 가게에서 돈 벌어 친정 송금했더니 남편은 내게 전처자녀들은 돌보지 않고 남의가게에서 일한다며 이혼을 요구해요(참여자 10).

* 나 돈 벌어 친정 도울 수 있어 행복해요.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지만 내가 돈 벌어 친정 도울 수 있어 행복해요(참여자 10).

남편이 도와주고 나도 돈 벌어 친정 도울 수 있어 결혼한 보람 있어요(참여자 14).

한국 입국 후 곧 취직해서 돈 벌어 친정 돕고 있어요(참여자 13, 14, 15).

혼돈단계에 들어서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식생활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용기를 가지며, 만들고 먹어보면서 가족들과 식재료나 조리법 등으로 혼돈을 경험한다. 가족생활에서 기대와 달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 전처자녀, 문화차이로 인한 부부위계에 대한 생각,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와 친정에 대한 송금문제로 위축되고 갈등한다. 한국남성이 가부장특권으로 행사하는 권위의식이나 폭력, 무능력에 대한 부인의 실망감은 단순한 문화차이라거나 남편의 경제적 위상에 대한 아내의 실망감보다 더 크다(채옥희·홍달아기, 2008). 친정부모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등한시하는 남편에 대한 혼돈이 필리핀의 양변적인 가족제도와 딸을 더 중요시하며 친정을 도우려는 문화가 한국의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충돌한다.

3) **조화단계**

조화로 위치를 찾는 것과 같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주변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때는 적합하지 않는 문화는 버리고 새로운 학습을 하며 적합함을 위해 노력한다(구차순, 2007). 내복을 입게 되며, 한국음식과 필리핀 식생활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상차림도 개인접시로 바꾸는 등 주변을 이해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위해 노력한다.

(1) 의생활

* 내의를 입게 됨

시어머니가 춥다고 내의를 사주었는데 답답해서 입지 않고 다니다가 심한 감기에 걸려 많이 아프게 된 후 겨울이 되면 항상 내의를 입게 되었어요(참여자 3).

* 겨울이 지나면 옷 정리 수납이 힘들지만 해결책을 찾으려하고.

한국 의생활이 다양해서 좋으나 사계절로 의생활에 돈이 많이 들지만 친구자녀들과 바꾸어 입히고 아름다운가게를 이용하고 살아요(참여자 1, 2).

* 세탁기 사용이 용이하다.

필리핀에는 세탁기가 있어도 전력사정이 좋지 않고, 전기요금이 비싸고, 수압이 낮아서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물 걱정 없이 사용해요(참여자 6, 13, 14).

(2) 식생활

* 한국음식 배움

시어머니한테 반찬 만들고 국 끓일 때 물어보고, 적어놓고 배웠어요(참여자 2).

가끔 TV요리하는 것 보고 해보기도하고 시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이제는 한국음식 만들 수 있는 것 많아요(참여자 3).

* 한국음식 매일 먹고, 필리핀음식 가끔 먹어요.

처음 2년 정도는 한국된장, 김치, 아구찜 못 먹었어요. 그러나 한국음식배우면서 잘 만들게 되고 자주 먹으면서 필리핀음식은 별로 먹고 싶은 생각 없어요(참여자 2, 3, 8, 18).

* 개인접시로 상차림 바꿈

필리핀에서는 스프를 개인접시에 먹는데 한국에서 찌게를 한 냄비에 식탁가운데 놓고 온가족이 숟가락으로 먹는 것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개인접시나 국 그릇으로 바꾸었어요(참여자 1, 2, 3, 8).

(3) 주생활

* 아파트에 수납공간이 많았으면…

아이들이 성장해감에 따라 집이 좁게 느껴져요. 특히 수납공간이 너무 적어 상자를 이용해서 정리하고 친구아이에게 옷과 장난감, 책등을 물려주면서 넓게 살아요(참여자 2, 8, 12).

* 청소 힘들지만 필요해요

웬 먼지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매일같이 닦아도 걸레가 더러워요(참여자 1, 2, 3, 18).

* 채소와 과일도 가꾸고…

농촌에서 일하고, 사람들도 만나기 힘들어서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면서 살다보니 요즈음은 채소도 가꾸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방안에 침대도 들여 놓고, 힘든 거 없어요(참여자 18).

(4) 가족생활

* 남편의 무능력, 시부모 의존

남편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시부모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어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좋을 텐데. 영어강사로 일하면서 필리핀 친정도 돕고 시부모로부터 자유스러워지고 싶은데 시부모는 살림만하라기에 집안에서 살림하면서 아이들 친구에게 영어교습을 하고 친정도 도와요(참여자 3).

* 1인 3역으로 힘들었으나 맞추면서 살았어요....

결혼 전 일하면서 친정을 돕다가 혼기가 늦어지면서 한국으로 시집가면 잘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왔으나 처음부터 시어머니 병수발, 집안 살림, 영어강사 하면서 힘들게 살았어요..특히 남편은 말이 없어 고맙다거나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표현할 줄 몰라도 그런 사람이려니 생각하고 맞추면서 살아요(참여자 2).

* 방과 후 영어선생. 영어만 잘하면 편안하게 생활할 줄 알았어요.

방과 후 영어선생하면서 아이들 친구들이랑 영어 가르치다 보니 우리아이들과 애들 친구엄마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좋아해요. 보람이 있어요(참여자 2).

영어를 가르치면서 전처자녀들과 친하게 되었어요(참여자 8).

영어만 잘하면 어느곳에서나 편안하게 생활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한국정착기간이 길러지면서 한국어를 못하니까 반쪽 인간 같아서 한국어 배워요(참여자 1, 2, 3, 4).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음식조리법을 터득하고 식습관을 개선하며, 자기가 삶의 운전자로 생각하며 절대 단념하지 않고 이겨내자는 생각을 가지며 한국의 가부장적 제도에 저항하면서도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정착기간이 5년 이상 되어도 한국어능력부족, 영어사용에 따른 사회적 우월감 등으로 한국어를 늦게 배우기 시작하여 실력이 매우 낮은 사례들이 많다. 그러나 자아실현과 친정을 도우려고 영어강사하면서 새로운 학습을 하고 좋은 문화는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조화를 찾으면서 적응한다.

4) 자립단계

한국에서 정착기간과 비례하여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음식에 길들여지고 입맛이 한국식으로 바뀌어 모국음식을 찾지 않는 경우도 있다. 7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음식, 한국가족문화, 한국어에 익숙해지고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폭이 넓어진다. 한국사회로 부터의 소외감과 갈등은 자신들의 결혼동기인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보상받는 모습을 보였고, 경제적인 이주라는 뚜렷한 목적달성은 한국 사회 문화적응과정에서 개인적인 불만을 억제하고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1) 의생활

* 겨울옷 세탁비가 아까워요.

겨울옷은 남편의 코트, 잠바, 신사복은 집에서 세탁할 수 없어 세탁소에 보낼 때 돈이 아까워 특수세제로 닦아도 보고. 먼지를 잘 털어 신문지에 싸거나 박스나 보자기로 싸서 보관해요(참여자 4, 12).

* 옷값이 비싸고 돈이 많이 들고.

겨울에는 아이들 옷값도 비싸요. 속내의부터 쉐터 잠바 등 입어야하는 옷도 많아 사는데 돈이 많이 들기에 알뜰장터나 친구들 아이와 되돌려 입혀요(참여자 4, 7, 9, 12).

(2) 식생활

* 한국음식 주로 먹고, 필리핀 음식 가끔 먹어요

시부모와 남편 입맛 따라 한국음식배우고, 자주 먹게 되면서 필리핀 음식은 가끔 먹어요(참여자 4).

* 나도 한국인 다 되었어요

김장 담글 때나 음식 만들 때 시어머니 따라 음식 만들면서, 먹고, 배워서 이제는 한국여성들보다 잘해요. 친척이나 가족들도 맛있다고 하고(참여자 4, 7, 9, 12).

(3) 주생활

*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요

농촌이다보니 겨울에는 추워서 보일러 마구 돌리는데 돈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다른연료로 대체해보려 해도 방법이 없어요(참여자 7, 9, 12).

* 부엌시설이 좋아요

부엌에 모든 시설이 다 되어있어요.. 가스시설, 전기밥솥, 냉장고, 레인지, 김치냉장고....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지요....음식 만들기가 좋아졌어요(참여자 4, 9).

(4) 가족생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은 입국초기부터 영어강사 하면서 친정을 돕기 위해 한국어 학습기회가 늦어지다가 자녀가 성장해가면서 한국어도 배워야 하고, 친정을 돕는 것보다는 내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모성애와 더불어 한국인으로서 정체감이 생기는 것 같다.

* 한국어를 이제야 배우게 되었어요.

입국 8년이 되었으나 곧바로 영어강사 하느라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자녀학교 숙제도 봐주기 어려워 센터에 왔어요(참여자 4).

* 친정보다 내 자식이 먼저 예요.…

필리핀의 가족을 도와주는 것보다 이제는 자녀 교육비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4, 12).

* 필리핀으로 자녀학교 보내고 싶어요...

한국학원비 비싸고 아주 경쟁적이며 얼굴색이 다르다고 따돌림을 당하는 자녀들을 방학에 필리핀 보내고(참여자 4, 7), 학교교육도 필리핀으로 보내면 교육비도 적게 들고 친정에 송금하니 도움이 되지요(참여자 12).

*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문화에 잘 적응해도 나는 한국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스를 타거나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외국인이라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나도 이방인 같아요(참여자 4, 7, 12).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바람까지 피워도 자녀 교육상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기회가 되면 자녀와 필리핀으로 가고 싶어요(참여자 7).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 입국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많은 학습을 통해 원숙한 적응을 이루게 되면서 마침내 모든 소외감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게 된다. 그러나 결혼초기부터 남편의 외도, 폭력, 경제적으로 무능함에도 자녀를 위해 인내하며 살았으나 남편의 생활태도가 변화하지 않아 이혼을 생각하고, 학원비가 비싸고 학교 수업이 경쟁적이며, 얼굴색이 다르다고 따돌림 당하는 자녀는 필리핀으로 보내서 부모에 맡기고, 송금할 수 있어 서로 도움이 된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인정과 존중 없이 문화의 우열을 가려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사회적 분위기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쇄신되지 못한다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통합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3.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정생활문화적응을 위한 지원망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가정생활 문화적응 단계별 도움과 지원을 살펴보기 위해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 조력과 지원을 받은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1) 허니문 단계

결혼하여 가장 먼저 경험하는 단계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단계이다. 필리핀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가난한 친정을 도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남편의 열악한 경제적인 환경과 가부장적인 한국문화에 직면하면서 실망하거나 갈등을 일으킨다. 특히 식생활과 언어능력부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가장 많은 단계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지원망은 남편과 가족, 방문교사, 친구이다.

*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임신시 먹지 못하고 토할 때, 시어머니가 사다 주신 콜라와 바나나, 빵, 사과, 우유 등이 도움이 되었고 고마웠어요(참여자 5). 시어머니가 외식시켜주고,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참여자15) 남편이

외식을 많이 시켜주어서 입덧을 이겨낸 것 같아요.(참여자16) 한국음식 만드는 것 가르쳐주고, 살림살이 도와주고(참여자 17)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큰소리 칠 때 무서웠으나 시누이가 위로해주고(참여자 5, 15).

* 방문교사가 한국어를—

친정 엄마같은 방문교사가 오면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시어머니, 남편 소리치는 것 적어지고(참여자 15).

* 친구가 생겼어요.

시누이의 도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나가게 되고 필리핀 여성들과 친구가 생기면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사라졌고(참여자 5) 필리핀 친구들과 말이 통하니까 수다를 떨 수 있어서 좋아요(참여자 11, 15, 16). 입덧하면서도 친구의 도움을 받았어요(참여자 11, 15).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식생활에서 어려움은 남편과 가족의 따뜻한 배려를 경험하지만, 언어부족에서 오는 의사소통은 본인과 가족이 동시에 겪는 어려움이다. 또한 가족생활 문화차이는 초기단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정체감 혼란을 겪는 시기이다. 시부모를 봉양하고 노동만을 제공하는 위치에 놓여있다고 느끼며 돈도 받지 못하는 가정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순종과 희생을 요구받기도 하였으나 센터에 다니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모국친구를 만나면서 많은 갈등도 해소되었다. 따라서 입구초기부터 한국어교육과 더불어 남편교육프로그램과 모국친구들의 자조모임의 활성화가 이들의 지지망이 될 것이다.

2) 혼돈 단계

자신을 새로운 환경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살펴보면서 다름과 같음을 찾는 혼돈의 단계라 할 수 있다. 고유의 생활방식과 새로 익혀야 할 생활방식의 차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기도 하며 새로운 생활에서 즐거움과 흥분을 느끼기도 한다. 자신과 어울리는 환경을 탐색해보고 접촉을 시도해본다(구차순, 2007).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자원을 찾아보지만 더 큰 지지체계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가족지원체계 내에 머문다. 따라서 가족보다는 TV나 친구의 도움을 받으려하고, 센터에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교육을 받으며, 본인의 노력이 중요함을 깨닫는다.

* 가족보다 TV나 친구

TV에서 한국음식 만드는 것 많이 배웠어요(참여자 6, 10).

친구가 한국 음식 만드는 것도 가르쳐 주고 한국생활 많이 가르쳐 주었어요(참여자 13, 14).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도움을.... —

센터에서 실시하는 1박2일간의 부부교육(참여자 14) 통해서 남편이 목소리도 작아지고, 순화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교육을 통해서 나에게 더 잘 해주시고...(참여자 13).

남편이나 가족들이 나를 무조건 가르치려고 해서 한국어공부가 더 힘들었는데 센터에 다니면서 이제야 제대로 배우는 것 같아요. 1년 이상은 해야 할 것 같아요(참여자 6, 14).

취업을 위한 교육도 센터에서 받고 막상 취업을 해보니 아이도 있고, 직장일이 늦게 끝나고, 남편이 불평을 많이 해서 그만두었어요(참여자 6).

* 본인의 노력...

처음에 여기 와서 나 못살고 필리핀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무엇보다도 음식이 좋아지고 눈치도 생겨서 한국가정생활문화 익히면서 참고 살만 해요(참여자 6).

전처아이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내 아이를 낳으면서 전처아이에게도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참여자 10).

3) 조화 단계

자신이 가족과 사회의 한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하는지를 깨닫고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실행한다. 자녀가 생기면서 자식이 내 삶의 의미로 자리잡으면서 전처아이들도 챙기면서 가족의 결속력도 강해진다. 센터에 열심히 다닌 보람으로한국어도 어느정도 익숙해지져 다문화강사가 되기도 하고, 한국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해 한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도 하며, 자신의 모국가족문화에 자부심도 가지면서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 남편과 본인의 노력

성실한 남편의 도움으로 한국에 입국 즉시 영어강사를 했고, 남편은 가정살림도 도우며 직장생활하면서 친정에도 도움을 주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친정도 어느정도 안정되어가고...(참여자 1).

전처아이들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영어공부도 도와주고 필리핀친정도 데리고 가면서 이제는 아이들이 잘 따르고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참여자 8).

* 자녀들로 부터

남편이 직장을 잃게 되었지만 자녀를 돌보기에 성장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노력하고 살아요(참여자 2).

* 시부모의 배려로...

남편은 시부모 농사 보조한다고 빈둥거리며 살지만 시부모님은 가끔 친정에 송금도 해주시며...(참여자 3).

*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도 배우게 되었고, 다문화강사교육도 받게 하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방과 후 교사교육도 받고 어린이집에 선생으로 데리고 가고...(참여자 8).

4) 자립 단계

* 본인의 노력

가정생활에서 남편이나 전처자녀들과 어려움을 겪을 때 적당히 무시하거나 신앙심에 의존하여 고통을 잊으려 해요(참여자 4, 12).

내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내 자식이 더 중요한 생각이 들어요. 친정에 송금하는 것 망설여지고 많이 못 보내요(참여자 7, 12).

* 남편이 인정하고 자녀가 도와주어...

시간이 흐르면서 배우고, 참으면서 한국생활 익숙해 졌어요. 이제는 나도 경제적 주도권을 가지고 가족에게 인정받으면서 살아요(참여자 4, 7, 9, 12). 아들만 보면 힘든 거 다 잊어버려요(참여자 9).

* 지역사회로 부터

필리핀에서 오면 영어를 다 잘하는 줄 알아요. 나는 학교를 많이 못 다녀 영어 가르칠 수 없어요. 한국말도 이제서야 아들 학교숙제 도움주려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배우기 시작 했어요(참여자 9).

센터에서 열심히 한국어 공부하면서 다문화강사와 방과 후 영어교사 교육받고, 영어강사로 나가면서 모든 것을 다 얻은 느낌이예요(참여자 12).

* 대학생이 아이들의 멘토로

농촌이라서 학원보내기도 어려워 고민되었는데 대학생이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 학습과 정서지원을 해주어 큰 도움이 되면서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자신들을 무척 도와준다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9).

위와 같이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각 단계별 지원망은 다음과 같다. 허니문단계에서 남편이 가장 의지가 되고 식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시어머니의 도움이 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방문교사들의 한국어 교육을 겸한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지원이 도움이 되었고, 센터에 다니면서 친구가 생겨 두려움과

외로움이 사라진다.

혼돈단계에서 한국생활1년이 지나면서 가족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닌 보람으로 한국어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정도가 되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줄었다. 특히 한국요리나, 생활문화는 가족보다는 TV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입덧 때 친구의 도움이 중요하다. 조화단계에서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되며, 태어난 자녀들로부터 정신적인 위로를 받는다. 지역사회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취업까지 주변 모두가 자신을 도와주는 것으로 친근감을 느끼게 되면서 조화를 찾는다. 자립단계에서 본인의 노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 친정을 돕는 것도 한계를 느끼며, 부모보다는 내 자식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녀가 곧 그들의 희망인 것처럼 여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대학생 멘토링을 통하여 자녀교육 도움을 받으며, 그들 나름대로 가족과 친구 등 이웃과 어울리면서 한국인으로서 정체감을 가지고 생활문화에 적응하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정생활 문화적응단계별 특성을 파악하고, 그 단계별 특성에 따른 지지망을 살펴 그들의 성공적인 적응과 문화적응단계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1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문화적응 4단계를 입국시기에 따라 분류하였다. 첫단계인 허니문단계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기대와 흥분, 행복감으로 한국생활을 시작했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외로움과 답답함을 경험하며 친정지원을 위해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남편의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차이로 갈등한다. 식생활은 된장 청국장냄새, 김치 매운맛이 힘든 경험이다. 가족생활에서 남편은 가부장적인 태도로 부인을 하인같이 부리는 것 같아 문화차이를 실감하며, 행복감과 갈등이 공존한다. 혼돈단계에서 한국가정생활에 적응되는가 싶다가도 현실을 직시하면서 위축되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임신출산으로 식생활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단계이다. 식생활에서 식재료와 식습관, 조리법이 다르다는 문화적 차이를 깊이 실감하며 자신의 위치가 혼란스럽다. 가족생활에서 친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고 행복이지만 남편은 친정에 관심주지 않고, 한국식을 따르라는 이기적이며, 가부장적인 특성으로 위축되고 혼돈하는 것으로 보아 필리핀의 양변적인 가족제도와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충돌하는 것 같다.

조화단계에서 새로운 환경을 조금씩 이해하나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되며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주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조화를 이룬다. 무능력한 남편대신 가정을 책임지고 친정을 돕기 위해 영어강사 하다가 한국어 배울 기회를 놓치고 늦게 공부하면서 한국어 못하면 반쪽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자립단계에서 한국에 입국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의식주생활에서는 많은 학습을 통해 원숙한 적응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친정을 돕는 것보다는 내 자식을 먼저 생각하며 한국인으로서 정체감이 생기지만 사회적 편견이나 자녀들이 따돌림을 당할 때, 영원한 이방인 같다고 느낀다. 한편 남편의 변화하지 못하는 나쁜 생활태도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증가한다.

둘째, 한국가정생활적응 단계에 따른 지원망은 허니문단계에서 남편이 가장 의지가 되고, 식생활에서 시어머니의 도움이 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방문교사들의 한국어 교육을 겸한 가정생활문화 교육도 도움이 되며, 친구가 생기면서 갈등과 외로움이 적어진다. 혼돈단계에

서는 가족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줄고 한국생활에 자신감도 생기지만 문화의 차이와 남편의 가부장적인 생활태도에 위축과 혼돈이 생긴다. 그러나 한국요리나 생활문화는 가족보다는 TV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입덧 시에는 친구의 도움이 중요하다. 조화단계에서는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태어난 자녀로부터 정신적인 위로를 받는다. 지역사회는 취업이나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며, 영어가 생활의 무기였으나 센터에 나와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하며 완전한 한국인이 되려고 노력한다. 자립단계에서 부모보다는 내 자식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며 자녀가 곧 그들의 희망인 것처럼 위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 입국시기에 초점을 둔 문화적응단계 분류로 소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무리가 있으나 몇 가지 제언 하면 다음과 같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중 영어를 한국생활 전략도구로 생각하며 입국 즉시 취업을 하는 경향이다. 적정기간동안 한국어를 익히게 하고, 영어 발음을 교정한 후 학원이나 학교로 취업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허니문단계부터 혼돈단계까지는 한국사회에서 우리국민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남편과 가족, 지역사회의 수용적인 태도 즉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입국초기부터 방문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국어교육 등 문화의 다름과 같음을 교육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이웃이나 친구의 자조모임을 강화하여 이들의 지지체계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지원망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화단계와 자립단계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센터에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 이들을 위한 전략으로 한국어교육은 물론이고 한국가정생활프로그램이 그들 수준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가부장적인 태도가 변화하지 못하는 남편을 위한 남편교육과 주말을 활용한 가족생활교육이나 자녀관계 향상 교육, 자녀 이중 언어 교육 등 자활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되어 모국의 정체성도 살리면서 한국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강현주(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문화 표출·유지 욕구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구차순(2007).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63-169.
4) 김오남(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김이선·김민정·한건수(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6) 김현경·신동주(2008).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 결혼생활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 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4), 519-535.
7) 김희주·은선경(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한 대처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33-66.
8) 박주희·정진경(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12(4), 395-430.
9) 송복희(2012). 아시아지역 가정생활문화를 통해서 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정생활 적응전략.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 신경희(2005). 국제결혼 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안혜옥(2006). 국제결혼여성 가정에 대한 연구-중국, 필리핀, 베트남 여성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양순미(2006). 농촌 가족의 변화;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 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13) 유가효・홍성희・김성숙・홍성의(2008). 결혼이민여성의 초기 적응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95-120.
14) 이태옥(2005).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과 사회지원망에 대한 연구 : 영광에 사는 여성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임안나(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초국가적 연망. 서울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정기선(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70-101.
17) 조용환(2004). 질적연구와 질적 교육. 교육인류학회연구, 7(2), 57-77.
18)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7). 다문화인식개선캠페인 필리핀 문화여행. 서울.
19) 채옥희・홍달아기・송복희(2009). 몽골 결혼이민여성의 한국가정생활 적응 사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4), 171-192.
20) 채옥희・홍달아기・송복희(2011).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배경과 출국 전 한국가정생활내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0(2), 327-338.
21) 채정민(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2) 최금해(2006).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3) 최연실・권용혁・우실하(2007). 한・중 국제결혼에서 갈등과 적응;'소외'와 '타자화'의 체험에서 '소통'과 '화합'의 모색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251-299.
24) 최혜지(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163-194.
25) 추현화(2008).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홍달아기・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 과학회지, 15(5), 729-741.
27) Berry, J. & Kim, U.(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Dasen, P., Berry, J. & SartouriusIn, N.(Eds.).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207-236). Newbury Park, CA, Sage.
28) Berry, J. & Sam, D.(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Berry, Segall & Kagi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91-326). Boston : Allyn & Bacon.
29) Chatani, K.(2001). Creating comfort : social support communication and cross-cultural adaptation of sojourner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30) Misun Lee(2008). The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Towardin Mongolia, 2008 international symposium on life and culture. 서울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 57-86.
31) Oberg, K.(1960). Cultural shock :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s. Practical Anthropology, 7, 177-182.
32) Pedersen, A. (1995), The five stages of

culture shock. westport : Greenwood Press. In Chai, Rosemary C. K. (2001), An exploratory study of cross-cultural adaptation of U. S. expatriates in Singapo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33) Ward, C., Okura, Y., Kennedy, A., & Kojima, T.(1988). The U-curve trial : A longitudinal study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2(3), 277-291.

■ 투 고 일 : 2012년 9월 26일
■ 심 사 일 : 2012년 10월 10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10월 31일